

“국민 ‘능력있는 정치’ 명령… 미래 먹거리 준비에 온 힘”

정치권 신년사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 기 살리고 성장하는 해 만들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삶 지키고, 국가 미래 개척”
이정미 정의당 대표
 “경제적 고통, 주체자들과 나눌것”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새해를 맞아 정치권에서 2023년 대한민국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줄길 갈망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위기 대비와 함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신년사에서 김진표 의장은 개인

과 함께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약속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당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출발한 점을 언급한 뒤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정신을 강

조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마지막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

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진보 정당들은 경제와 민생 위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23년을 맞아 “올 한해 마주할 더 큰 도전 앞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외롭고 고단한 시련들 곁에 힘이 되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 경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더 이상 서민들만 고통을 겪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고통을 경제 주체자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3대개혁 속도’서 계속

“고등교육 권한 지역 이양 ‘공정기회’ 누리게 할 것”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영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등을 언급하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제도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8시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가계·기업부채, 경제 불안요인 되지않게 지원”

금융권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한연장 준비
 신종사기 등 금융범죄 척결에 온힘
 물가안정 중점 통화정책 지속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가 녹록지 않은 만큼 가계·기업부채가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누적된 가계부채가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취약차주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해나가겠다”며 “기업부채에서 촉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기한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도 제고한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권에 도입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앱을 타 업권으로 확대하겠다”며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간다.

이 총재는 “지난해 시장불안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감독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중장기적 ‘불황극복’에 뒤야

>> 1면 ‘사건의 지평선에 선’서 계속

경제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올해, 국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하고 있다. 충격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뜻하는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가 갈대처럼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밝히는 북극성과 같은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런너마이어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21년 최고 경제학 서적으로 선정한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다.

가수 윤하는 ‘사건의 지평선’에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라고 썼다.

과거 60년 간 소중했던 성장의 결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맞닥뜨린 변화와 구조조정은 두려움이 됐다. 무엇을 하고자하는 동력을 삼켜버릴 블랙홀의

경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를 구해낼 한줄기 빛이다.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판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불황 극복’에 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L’자형 경기 추세, 즉 경기 침체가 오는 2024년까지 지속되는 비관적

/*세종=원승일 기자 won@